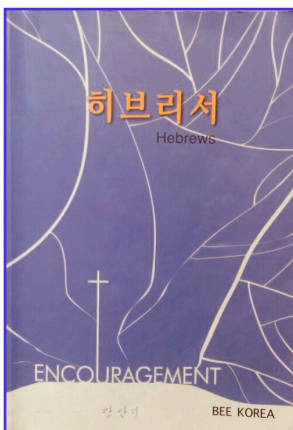


네번째 이야기

주님이 다시 써주신 혼인갱신 서약서



‘그리 뜨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주님께....’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스스로에 대한 안위감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오래된 신앙의 미해결 숙제가 있었다.

그것은 삶 가운데 부딪치는 이런 저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써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와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 나도 모르게 생기는 왜 그럴까? 언제까지 그럴까? 등에 대한 질문에 정답 없는 대답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다고 하지만 그 양상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여러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이미 받았고, 천국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나와 신자들에게 태만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좀 우스꽝스러운 논리들... 또 신실한 믿음생활을 하고는 싶으나 이를 위해 고난이 수

반된다면 잘 견디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 나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가끔씩 올라오는 이러한 내면의 숙제들을 정면 돌파할 만한 뚜렷한 해답도 없고, 이 고민들과 무관하게 살아갈 만한 의연함도 없는 채로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려니 하고 있던 중 BEE 히브리서 세미나를 수강하게 되었다.

과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특강이 열리는 시기나 요일, 시간대가 다른 때보다 심적인 부담이 적다는 이유와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한 나의 여러 잡다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8주에 걸친 세미나를 신청하였다.



1주차 강의 때 인도자님의 말씀 중 이번 세미나를 위해 ‘사람의 많고 적음 보다는 영적 실패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히브리서 세미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쩌면 내가 이 세미나를 꼭 수강해야 하는 이들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들뜨기도 하였다. 하지만, 2주차 강의를 들을 때 까지는 ‘BEE는 과제만 없으면 딱인데’, ‘학습서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로 과제를 위한 과제에 급급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자.’라는 생각에 히브리서 1주 1독을 목표로 히브리서 말씀을 읽거나 바이블 드라마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히브리서 말씀 듣기를 반복하였다.

세미나 시작부에 인도자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신 히브리서 전체 개관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학습서의 질문과 구성을 통해 저자가 의도한 바에 익숙해 졌기 때문인지, 4주차를 넘어서면서 히브리서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이지만 깨달아졌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과와의 사랑의 분명한 구체적인 기억의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다 지친 모습들. 그 속에서 결국 혼자 힘으로 일상을 살아내느라 상처만 남았고, 성한 곳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내 모습들이 보였다. 이젠 믿음의 담력조차 잃어버리고 주님께 대한

옛 사랑의 흔적만을 추억하게 되었다. 그래도 오뚝이처럼 과거의 연인이었던 주님과와의 기억들을 빛바랜 사진을 들여다보듯 쳐다보며 믿음의 끈을 그래도 놓지 않겠다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애달퍼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히브리서를 통해 다시 찾아오신 주님.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한 걸음씩 사랑 가득한 인자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가오시며 주님의 마음 깊은 속내를 히브리서 곳곳에 감추어 놓으셨을 줄은 미처 몰랐다.

구약의 약속들과 그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의 실제들과 그 분명한 언약의 실제들을 반복되는 패턴들을 통해 제시하셨다. 그리고는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넘어지는 나를 향하여 조곤조곤 말씀하셨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성경의 약속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 성취를 이루게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작은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셨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가올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주의 순결한 파트너와 신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실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분명하게 들여다보게 하셨다.



한참을 믿음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 실패들을 들여다보게 하시는가 싶더니, 어느덧 그러한 나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나의 죄의 깊이보다 더 크고 넓으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께서는 은혜의 감격으로 그 사랑 깊은 약속들을 구약과 신약을 오가며 맛보게 하셨다.

히브리서 세미나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 고민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 기쁨과 설레임을 가득 안고 결혼하였지만, 일상에 쫓겨 사랑과 기쁨을 잊은 채 살아가던 부부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의 감정을 다시 찾고 자신들의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제는 이전 보다 더욱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생사고락(生死苦樂)을 능히 함께 견디게 된다. 생의 마지막까지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모습과 어떤 면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을 처음 만나 감격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일상의 문제들과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첫 사랑의 감격을 잃고 의례적인 관계로 변해버린 나를 향해, 히브리서는 주님이 친필로 다시 써서 주시는 『혼인갱신 서약서』같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에게 분향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파트너의 자리와 그 여정인 이 땅에서 감당할 몫이 있는 순례자의 삶을 분명히 말해준다.

또한, 순례자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어 내는 인내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준다. 설렘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참다운 사랑일 수 없듯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 혼인생활인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견디어 낼 눈물과 헌신이 남아 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죽음보다 더 크고 영원한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스러운 신부를 위해 친히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소망의 닳을 내리게 하시는 이 믿음의 혼인갱신 서약서인 히브리서. 13장의 말씀과, 8주의 세미나를 통해 배운 대로 주님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주님을 돕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진정한 신부로 살아가리라. (글:김승연, 편집:이경주)



글쓴이 : 김승연

- 온누리교회 부천캠퍼스/성도
- 초등학교 교사
- BEE는 2008년 부터 수강하였으나 집중적으로 듣진 못했고 간헐적으로 여건이 허락할 때 특강 위주로 수강함. 봉사

BEE 소식

- 4월 7일 비 가족 모두 봄 나들이 갑니다. 대여한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테이블별로 점심 식사를 하신 후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꽃구경도 합니다. 모처럼의 나들이이니 모두 함께 하셔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